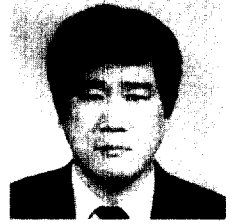


# 研究投資를 통한 大學人力の活用



高麗大學校 食糧開發大學院長·生物工學研究所長 教授 梁 漢 喆

最近의 科學技術의 급속한 進步는 '尖端技術'이란 말로 表現되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生活속에서 感覺적으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들 尖端技術中에서도 半導體工學·遺傳工學 등은 광범위한 분야의 산업에서 응용되고 있어 國內市場은 물론 世界市場에서 世界우수 企業間의 시장확보, 제품개발 및 技術의 高度化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政府에서도 尖端技術의 研究開發의 重要性과 高附加價值 製品의 開發 잠재력을 인식하고 技術育成法을 제정하여 政府차원에서 支援함은 물론 尖端科學 分野의 研究開發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나라 科學技術 發展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하겠다.

새로운 技術을 開發하여 産業化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많은 연구비와 인력의 投資가 따른다. 또한 기초연구를 통한 技術의 개발이 아닌 모방만으로는 좋은 結果를 기대하기란 어려우며 일정한 연구기간과 經驗에 의한 技術 蓄積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企業의 研究者들은 장기적인 眼目에서 경제적으로나 혹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研究를 하려고 하지만 企業主로부터 압박을 받게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연구자에게 독촉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짧은 기간내에 成果가 없는 研究에 계속되는 投資를 꺼려하거나 成果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經營者와 實務에 종사하는 研究者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產學協同 體制에서 關聯 大學과 企業의 經營者 사이에도 企業의 研究者와 經營者 사이의 갈등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企業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얻기 위한 기대만큼 바라는 成果는 쉽지않으며 또한 劃期的인 結果를 얻는다는

것이 자주있는 일은 아니다.

하나의 企業이 生産性 向上과 새로운 제품 開發을 통하여 새로운 産業을 發展시키는 것이 곧 國家의 發展이다. 즉 企業은 既存産業의 活性化를 통하여 經濟成長을 높이고 따라서 用役을 증대함으로써 企業과 國民이 다 함께 國家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제는 先進國의 技術保護政策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國際的 狀況에서 自救策으로 技術開發에 전력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新物質開發을 위한 研究는 長期的인 投資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既存企業들이 自体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보다 오히려 輸入製品의 販賣에만 주력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企業體 研究所의 研究機能이 弱화되고 따라서 研究人력을 양성하는 大學의 教育機能은 후퇴하여 결국에는 自体의 技術開發 能力은 전혀 培養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들을 研究投資의 確大와 体系的인 研究支援에 의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研究와 밀접한 관련된 出願研究所와 劃期的인 育成, 大學院에 대한 基礎研究 支援의 確大에 의한 人力養成, 各種 研究센터의 설치와 육성 등이 시급하다.

企業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크겠지만 研究開發에 投資하는 方案 등을 模索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을 만들어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大學의 研究人력을 적극 活用해 주기를 바란다. 점차 尖端技術 開發의 적극적 育成에 힘입어 產·學·研의 協同的 研究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 앞으로 좀 더 종합적인 開發 研究가 수반되어야 尖端 産業化 研究를 成功的으로 수행해 나가려면 이러한 協同的 努力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